

# 불의에 항거한 호남의병사 재조명

다시 쓰는 구례 석주관전투  
정동욱 외 1인 | 구례문화원



‘약무호남시무국가 (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이 관공구를 다시금 되새길 기회가 마련됐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과거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작품의 공동저자들은 과거의 역사는 현재로도 기억된다고 말한다. 지금을 사는 우리 개개인에게 새로운 기억으로 현상(現象)되기 때문이다. 호남 동부지역의 정유재란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지난 9월30일 정동욱·문수현 작가의 공동 지음으로 구례문화원에서 펴낸 호남 의병사를 그린 작품이다.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에 자리한 석주관성을 중심으로 정유재란 당시 목숨을 걸고 벌인 의병들의 항일 투쟁사를 담고 있다. 총 5차례에 걸친 이 전투에서 구례 현민 3500여명과 화암사 승병 153명이 장렬히 전사했다.

1597년 8월16일, 임진왜란 때부터 줄곧 구례를 지키던 구례 현감 이원춘과 전라 병마절도사 이복남이 남원성전투에서



구례 석주관성 전경.

정동욱 작가 제공

전사하자 왕득인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한다. 그는 평소 눈여겨 본 석주관으로 구례 의병 400여명과 함께 들어가 섬진강과 인접한 외길을 타고 들어온 왜군과 2차례에 걸쳐 맞붙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패하며 모두 전사했다. 1597년 9월 말쯤의 일이었다. ‘구례 석주관 전투’는 호남을 유린하던 왜군에 전 현민이 들고일어난 한 맺힌 혈투다. 당시 5만7000여명의 왜 좌군은 호남 일대를 잔인하게 짓밟고 있었다. 임진

왜란 때 오로지 조선의 왕을 잡고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부산에서 한성으로, 한성에서 평양을 거쳐 의주로 북진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호남을 장악하고 모든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정유재란은 오로지 호남을 짓밟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순천 왜교성에 진주하고 있던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하 시마즈 요시히로로 하여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석주관을 탈환하라고 명령했다. 1597년 11월과 12

월, 그리고 이듬해 봄(음력 3월로 추정)까지 시마즈는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부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지만, 의병들과 구례 현민은 갖가지의 유격전으로 맞서 왜군을 두 번 격퇴한 뒤 마지막 5차 전투에서 패해 모두 지리산과 섬진강의 산하에 잠들고 말았다. 이번에 출간된 ‘다시 쓰는 구례 석주관 전투’는 구례의 전투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호남을 지키려던 고경명 부자의 금산전투, 황진의 웅치·이치

전투, 김시민의 1차 진주성전투, 황진의 2차 진주성전투, 이복남과 이원춘의 남원성전투 등 호남 의병장들의 역사적 항쟁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한다.

책의 공동저자인 정동욱 작가는 지난 6개월간 석주관에서 살며 임진왜란·정유재란과 동고동락했다. 석주관 7의사의 책들을 펴 들고 관련 동영상을 보며 작품 기술에 몰두했다. 그는 구례에 살면서 19번 국도를 타다 석주관 칠의사를 지나칠 때면 늘 궁금했다고 전한다. 이런 궁금증은 결국 치열했던 구례의 의병사를 탐구해 책으로 펴내는 시도로 이어진다.

정 작가는 “글을 쓰며 ‘7의사’로 불리는 7명의 의병장과 그들과 함께 이름 없이 죽어간 3500명의 구례 현민, 153명의 승병에게 마음이 쏟렸다”고 밝혔다.

이어 “석주관에서 구례 의병과 맞붙었던 시마즈 요시히로의 후대가 메이지 유신의 한 세력으로 거듭난 뒤 현재 일본 해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때 시마즈를 석주관에서 잡았다면, 그 뒤 일본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거의 역사는 현재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구례 섬진강변에 자리 잡은 석주관칠의사는 427년 전의 그 일을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이 머물러 있는 장소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나답게’ 살 자유는 없는가?… 차가운 상상력으로 빛어낸 SF

목소리의 증명  
단요 | 위즈덤하우스 | 1만7500원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욕망까지 제한하는 세계에 세 개의 자아를 가진 소년이 있다. 그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계와 자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일이다.

‘개의 설계사’,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 등으로 주목 받았던 작가 단요가 신작으로 돌아왔다. 단요는 지난 2022년 청소년 소설 ‘다이크’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2023년 문운성SF문학상과 박지리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SF소설계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배경은 기술의 범위가 엄격하게

제약되는 가상 세계다. ‘숯기하다 못해 소중한 단어’인 자유가 가진 모순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과 그 기준의 판단이 무엇으로 이뤄지는지 탐구한다.

21세기 기술 발전 수준과 가장 가까운 거주구에 사는 열일곱 소년 ‘태서’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들이 있다. 냉소적이지만 미움받기 싫어하는 ‘1호’, 제멋대로에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면서도 남다른 번뜩임을 가진 ‘2호’다. 그리고 이 두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체제 순응적인 태서를 ‘3호’라고 칭한다. 사사건건 사고를 일으키는 1호와 2호는 태서에게 3호가 문명재건청이 문제아인 태서를 감시하려고 집어넣은 인공지능이라고 주입한다.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 역시 친부모가 아니며, 사고는 3호를 설치하고자 꾸며낸 자작극일 뿐이라고 주

장한다. 이에 태서는 부모님이 정말 살아 있는지 확인해 보자며 어릴 적 거주하던 곳으로 향한다.

작품은 문명재건청이라는 신에 비견하는 조직이 벌이는 거대한 사회 실험 배경으로, 개인과 사회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를 극대화해 보여준다. 전자잉크 태블릿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주구에서 태어날지, 지문 인식은 커녕 열쇠만 사용하는 거주구에서 태어날지가 개인의 운에 따라 결정되는 세계라면, ‘자유’란 제한된 배경 안에 선택지 몇 가지가 주어지는 것뿐이라고 한계성을 지적한다.

작품 속 2호는 극단적으로 그려진 인물이기도 하지만, 톨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완벽한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박찬 기자



## 세포 리셋 통한 건강 되찾기... 기능의학 혁명

닥터덕의 세포 리셋  
김덕수 | 김영사 | 1만8900원



질병 치료보다 예방을, 증상보다 원인을 바로잡는 기능의학 혁명. 지난 2001년 개원해 국내 최고 권위의 기능의학자로 이름을 알린 김덕수 의학박사는 현대 의학의 약물 치료에 한계를 느끼고 깊이 고민하던 중 환자의 삶에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기능의학’에 매료됐다. 만성피로, 만성질환, 가속노화 등으로부터 평생 해방되는 법을 제시하는 이 작품은 왜 몸을 해독하고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식단 조절과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일괄한다.

책은 대한민국 대표 기능의학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20만명, 누적 조회수 2000만명 이상을 확보한 ‘닥터덕’의 핵심 콘텐츠를 다룬다. 아무도 짚어주지 않는 현대의학의 오류와 결점을 설파하며 수많은 진료 경험과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약물 치료 없이도 건강을 회복하는 길을 안내한다.

특히 병원에 가지 않고도 몸의 염증과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세포 리셋’을 강조한다. 모든 질병이 개별 세포의 건강과 연관돼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해야 장기별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또 영양제 섭취도 비중 있게 다루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세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밝힌다.

사람마다 다른 면역력을 에너지 과잉, 영양 결핍, 환경호르몬, 잘못된 식습관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를 예방할 해결책을 나열한다.

김 박사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세포 리셋은 △질병 리셋 △면역 리셋 △장 리셋 △습관 리셋 △식단 리셋 등이다.

질병 리셋은 자신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 식습관 등을 점검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면역 리셋은 알맞은 비타민 섭취를 통한 망가진 면역 체계의 회복을 제시하고 장 리셋은 장과 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장내 미생물 분포에 따른 질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진단한다. 이어 습관 리셋과 식단 리셋에서는 해독 가이드, 운동법 등으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법과 기능의학 관점에서 식단을 구성하는 법을 제안한다.

박찬 기자

창극의 이면론  
김향 | 아카넷 | 3만5000원

‘창극은 어떻게 경계를 넘어 교감하는 예술이 됐는가?’ 최근 판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융합이 이뤄지고 웹툰 ‘정년이’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며 창극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30여년간 창극을 이론화해 최근의 경향까지 함께 소개해 준 책은 전무했다. 이는 창극을 양식화해 고유의 예술적 특질을 규명하려 했던 그동안의 방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는 이 같은 한계를 ‘이면론’을 통해 극복한다. 다른 장르와 변별되는 창극의 정체성과 예술적 특질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엮어 창극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재버위크의 밤  
프레드릭 브라운 | 엘릭시르 | 1만7000원

“만약 자신이 그날 자정 전에 죽을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때 술을 마셨을까? 나라면 당연히 마셨을 테지만.” 지역 주간지 ‘개별 시티 클라리온’의 편집인인 닥 스토커는 화끈한 특종 기사를 내는 게 소원이다. 어느 날 그에게 살인 사건을 알리는 전화가 걸려 오고 갱단이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1950년 첫선을 보인 프레드릭 브라운의 독특한 상상력과 유머 감각이 투영된 작품이 국내 출간됐다. 이 작품은 루이스 캐럴의 시 ‘재버위크’에서 영감을 받아 초현실적이고 불가해한 분위기를 작가 자신만의 색깔로 녹여냈다. 초기 장르소설계에 영향을 미친 경이로운 상상력과 대담한 필력이 돋보인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히라오 마사히로 | 북하우스 | 1만8000원

히라오 마사히로 | 북하우스 | 1만8000원  
모든 판단의 순간에 가장 ‘나’다운 기준을 제시해 줄 윤리학 입문서가 출간됐다. 화제의 명강의로 학생들을 윤리 철학의 길로 이끌었던 저자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실천 철학 공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어떻게’를 넘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만의 철학을 가졌는지 되물으며 삶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설명해 나간다. 도덕적 혼란으로 가득한 시대에 ‘윤리’란 평생을 곁에 두고 활용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설파한다. 독자들은 작품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돼줄 윤리 철학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다.

박찬 기자